선석 부족 탓… 10만t ↑ 크루즈 강정항으로

도, 제주항 선석 배정기준 14만t에서 10만t으로 변경
올해 제주항 22척·강정항 28척 등 총 50척 입항 예정

앞으로 제주에 기항하는 10만t 급 이상의 크루즈선은 서귀포 강정민군복합항으로 배정된다. 제주항 내 고질적인 선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서귀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주도의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크루즈선 선석 배정 변경 기준을 14일 제시했다.

변경된 조치에 따르면 제주항의 경우 선석 배정 기준이 당초 14만t에서 10만t으로 변경되며, 10만t 이상의 크루즈선은 서귀포 강정민군복합항(이하 강정항)에 입항해야 한다. 또 제주항 크루즈 선석인 제8부두는 크루즈선 입항 증가 및 부두 추가 개발 등 여건 변경 시까지 한시적으로 크루즈선과 국내선이 공동 사용하며, 이르면 4월부터 국내 여객선 사용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같은 기준 변경 조치에 따라 강정항에 배정된 크루즈선이 2배로 늘었다. 당초 올해 강정항에 배정됐던 14척에 더해, 10만t 이상 크루즈선 14척이 추가 배정되면서 강정항에는 올해 총 28척의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하게 된다.

제주항의 경우 총 22척의 크루즈선이 들어온다. 강정항과 제주항을 더해 올해 총 50척의 크루즈선이 제주를 찾을 전망이다.

우선 오는 19일 버뮤다 선적 11만5000t급 대형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승객 3000명을 태우고 강정민군복합항에 처음으로 입항한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는 올해 총 14회 강정항에 입항할 계획을 세웠다.

도는 크루즈 선석 배정 기준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제주항 선석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서귀포시 상권 활성화를 통해 제주시와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항은 선박 대형화와 최근 5년간 물동량이 연평균 6.9% 증가함에도 선석 부족으로 인한 화물 처리 한계와 항만혼잡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왔다.

서귀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강정항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원도심과 연계한 기항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다만 대형 크루즈선의 기항지 변경이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반발이 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균형발전을 위해 10만t 이상의 초대형 크루즈선은 강정민군복합항 중심으로 배정하고, 제주항은 외항 2단계 개발 등 여건 변경 시까지 크루즈부두를 내항선과 공동 사용해 선석 부족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호라산밀생산자협의회와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지난 13일 시장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행정지원에 대해 약속했다. 서귀포시 제공

오는 6월 첫 수확 호라산밀 작황 좋다

생산자협의회, 서귀포시에 지속적 행정지원 요청
40kg 기준 7만원 전량수매 계약… 농가 확대 예상

지난해 파종한 월동무 대체작물인 호라산밀 작황이 좋은 편으로 오는 6월 정상적인 수확 및 수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호라산밀생산자협의회는 지난 13일 서귀포시청에서 이종우 시장과의 첫 간담회를 갖고 호라산밀 재배 조기 정착에 따른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태관 회장은 "현재 호라산밀 재배면적은 145ha이며 가마당(40kg 기준) 7만원에 전량 수매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며 "올해 첫 수확이 이뤄지면 보리와 기존 밀보다 높은 수익이 보장돼 수매 이후 호라산밀 재배 참여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월동채소 재배지에 식량작물인 콩을 재배하는 경우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추후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호라산밀 수매가격은 기존 제주산 맥주보리의 수매가격 5만1000원(보조금 1만2000원 포함)에 견줘 1만9000원(37.2%) 높다. 여기에 생산량도 호라산밀이 맥주보리에 비해 120% 정도로 예상되며 농가소득면에서 호라산밀의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게 호라산밀생산자협의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종우 시장은 "호라산밀뿐만 아니라 밭작물 다품종 적정 생산을 위해 권장하고자 하는 작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화작물 육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권우 감귤농정과장은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은 월동무 등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절(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인한 타 작물 재배면적 증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호라산밀생산자협의회는 대정읍과 안덕면에 거주하는 23개 호라산밀 재배농가로 구성돼 있다. 백금탁기자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어제 정책토론회

"발달장애 일상 안 치료 지원 절실"

토론자들 "공적영역서 치료 지원 필요" 강조

14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는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강희만기자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진단·치료가 절실하지만 이를 통합 지원하는 기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달장애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선 학교 등 공적 영역과 일상 안에서 치료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치료비 부담(**본보 지난 2월 2~3일자 '장애아 가족 부담 못 더는 발달재활서비스'**) 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자리다.

발달장애아 부모인 정성희 씨는 이날 토론에서 "아이들의 장애가 의심됐을 때 처음 만나는 기관이 병원이지만 18개월까진 판정을 하지 않고 지켜보자고 한다"며 "이 때문에 부모들은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로 아이의 발달상태를 판단하거나 전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 씨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아이에게 우선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조언하고 부모 상담도 함께 지원하는 장애아동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며 "장애아 부모들의 치료실 선택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선 어린이집, 복지관, 학교 등 공적 치료 서비스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인 낮은울타리 어린이집 전연경 원장은 자신이 방문했던 미국 유치원 사례를 거론하며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은 논스톱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해당 유치원 통합교실에선 장애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사가 비장애 아동과도 상호작용을 하며 심리치료를 했다"며 "발달장애아동의 치료가 치료실이 아닌 교실에서 이뤄지고, 치료사가 교실 안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원장은 이 사례처럼 장애아의 모든 일과와 연결돼 언어, 감각통합, 심리운동 등 다양한 치료가 이뤄지는 '초학문적 접근'을 강조하며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이 멈추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할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아동을 지원할 도내 특수교사, 치료사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도 과제로 제시됐다. 김현주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아동교육지원팀장은 "복지관 통합보육지원센터에서도 지난해 5개월 넘게 특수교사를 채용하지 못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과 조기 중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특수교사와 치료사 등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은경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회장은 "발달장애는 조기진단, 조기중재가 중요함에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는 시기는 평균 7.3세, 지적장애의 경우 7.9세가 돼야 선별되고 있다"면서 장애아 조기 검진을 위해 병원 외에 검증된 사설 센터 등에서도 진단, 재활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도, 어촌계 부담 경감 위해 해녀탈의장 등 대부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촌계와 해녀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해녀탈의장 등 국유지에 시설된 수산시설 부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를 지원한다.

당초 국유지에 마련된 어촌계 해녀탈의장 등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무상 사용해 왔으나 국유지 일제 등록 이후 2012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유지 내 탈의장 등 수산시설물(탈의장, 작업장, 창고)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은 어촌계이다. 다만, 어촌계 점유시설 중 수익시설(상가 등) 부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대로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핵심물질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Powerful
용량 : 20kg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au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밭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윈터프린스 탐나는봉 사라향 하례조생 제라몬 미니향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학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완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궁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몬: 함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신고번호 03-0182-2020-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예약 주문생산: 탐빛1호, 선킹,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